

성가대가 수상하다!



“우리교회 성가대 맞나요?” “어쩔 저렇게 달라졌죠?”

요즘 주일예배 때마다 나오는 교인들의 반응이다. 찬양의 격조가 달라지고 인원수가 겁나게 많아졌다. 악보까지 내려놓은 자신만만한 표정들을 좀 보라! 면면을 보면 새 얼굴도 많지만 고참들도 제 자리에 있다. 그럼 뭇 때문에 이렇게 눈에 띄는 변화가 생겼을까? 궁금증을 안고 추적해봤다.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지목하는 인물이 있었다. 성가대장이었다. 성가대 변화의 진앙지로 떠오른 송종범 집사, 평일 오후에도 그는 몹시 바빠 보였다.

“아, 조금 전까지 한국에 잠시 다니러 간 지휘자를 대신할 분을 모시려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얘길 들어보니 아침나절에 집에서 나와 하루 종일을 교회 주변에서 배회하고 있었다. 올해 성가대를 맡고서부터 자신의 직업이 성가대장임을 선포했다는 그는 그렇게 그 일을 위해 전력투구 하고 있었다. 사실 그의 성가대 올인은 지난해 말부터 시작됐다.

“성가대장 직분을 권유받고 임명되기 전에 벌써 한국에서 성가대 가운을 준비했어요. 박목사님에게 전화를 드렸더니 깜짝 놀라시더군요. 그러면서도 허락을 해주셨어요.”

누구라도 놀랄 수 밖에 없던 이유는 그가 준비하겠다는 성가대 가운이 100벌이나 되었기 때문이다. 당시 성가대원은 50명이 채 안됐다. 그렇게 믿음으로 가운부터 준비하였더니 4개월여 만에 성가대원은 벌써 80명을 넘어섰다.

“역대기를 보면 다윗의 성전 봉헌시 10분의 1정도는 노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최소한 150명 정도의 성가대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의 목표는 2부 성가대원 100명, 1부 성가대 50명을 확보하는 것이다. 지금 추세대로라면 별로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 조만간 1부 성가대도 발족할 예정이다. 가만히 애길 듣다 보니 성가대에 대한 그의 애정과 열심은 상상을 뛰어넘는다. 그는 사실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지난해 살고 있던 집마저 팔았다. 그러다 성가대장으로 임명되자 다시 집을 새로 사서 눌러앉았다. 어디 집이 한, 두 푼 짜리인가. 그 집을 지금 성가대원들의 단골 모임장소로 개방하고 있다. 좋아하던 골프도 자제하고 모든 생활 사이클과 우선순위를 성가대장이라는 직분에만 맞추고 있다. 그가 ‘2012년 성가대 계획’이라며 건네주는 A4용지에는 석장에 걸쳐서 빼곡히 각종 행사계획과 운영방침 등이 기록되어있었다.



“올 한해는 제가 한국에도 안 가겠다고 선언했어요. 어쩔 수 없이 일 때문에 가야 하더라도 월요일에 가서 토요일이면 반드시 돌아오겠다고요.”

그런 열심과 자기희생이 성가대원들을 감복시켰나 보다. 1분기 동안 성가대 출석율은 90%이상,한국에 다니러 간 사람들을 빼면 거의 100%수준이다. 그는 그렇게 자신을 믿고 따라주는 대원들이 좋아서 또 섬기는 일을 주저하지 않으니 이게 이른바 상승작용이 되어 성가대를 날아오르게 하는가 보다.

당연한 궁금증이 생겼다.

“가정을 등한시한다고 가족들이 싫어하지는 않나요?”

“아니에요. 오히려 제 아내나 아이들이 더 좋아해요. 교회봉사를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서 이제야 제 원래 모습을 찾았대요. 그 동안 빈둥거리면서 노는 건 아빠의 모습이 아니었대요.”

그는 주일학교 시절부터 평생 신앙생활을 해왔고 특히 성가대 활동에 유달리 열심을 보였다. 때문에 성가대에 무엇이 필요인지, 어떻게 대원들을 섬겨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도가 텃다. 그러던 그가 우리교회에 와서는 아무 활동도 하지 않았다. 별로 나서고 싶지도, 튀고 싶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3년 전쯤부터 비로소 성가대원으로 활동을 시작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억제된 그의 가슴 한 켠에는 대신 우울증이라는 그림자가 서서히 자리잡고 있었다. 그러던 차에 성가대를 맡게 됐다.

“성가대장으로 임명되고 나서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니까 영적으로도 회복되는 것 같아요. 때문에 저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시키신 것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제 임기 동안만큼은 정말 최선을 다할 작정입니다.”

열정이 많으니만큼 욕심도 많다. 좀 더 수준 높은 곡들도 연주하고 싶고, 중창단도 만들어 활동하고 싶고, 크리스마스 때는 헨델의 메시아 같은 대곡에도 도전하고 싶다.

“요즘 저는 정말 행복해요. 저번 부활절 아침에는 감동했어요. 자기 순서도 아닌데 10여명 이상의 대원이 일찍 나와서 1부 예배부터 봉사를 하시더라구요. 이렇게 열심으로 따라주시는 대원들이 있는데 제가 왜 신나지 않겠어요.”

함께 성가대로 봉사하는 임윤빈 장로는 “기획력, 추진력, 섬김 등이 대단하신 분이예요. 저도 성가대장을 해봤지만 그만큼 못했어요. 지금 이대로만 꾸준히 해주길 바라요. 앞으로 10년만 더...”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열정과 섬김과 희생 그리고 감동이 성가대에, 그레이스 교회에, 지금 나비효과처럼 시나브로 번져가고 있다. ♣

[김영규 기자]